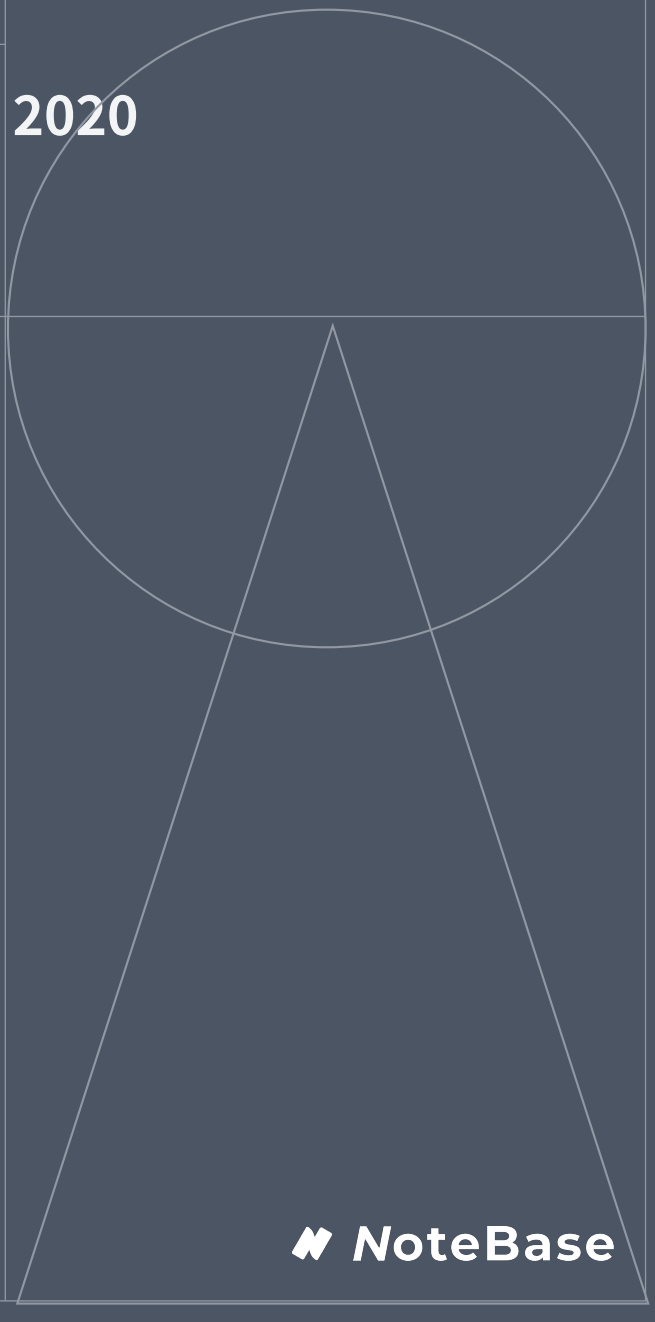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0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0

###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0

1. 홑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어제 빨간 모자를 샀다.
   ② 봄이 오니 꽃이 피었다.
   ③ 남긴 만큼 버려지고, 버린 만큼 오염된다.
   ④ 우리 집 앞마당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홑문장과 겹문장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횟수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홑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다른 절을 안은문장과 절들이 이어진 문장이 있다.
관형절: 문장 안에서 관형어 구실을 하며 뒤의 명사나 의존 명사를 꾸미는 절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빨간'은 '모자가 빨갛다'에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로 '모자'를 꾸민다. 따라서 홑문장이 아니라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② X — '봄이 오니'와 '꽃이 피었다'에 각각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고, 연결 어미 '-니'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올바른 판정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③ X — '남긴'과 '버린'은 각각 의존 명사 '만큼'을 꾸미는 관형절이고, '버려지고'와 '오염된다'는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판정은 절을 안으면서 절들이 이어진 겹문장이다.
④ O — '장미꽃이'가 주어이고 '피었다'가 서술어이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우리 집 앞마당에'와 '드디어'는 각각 부사어이므로 새로운 절을 만들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문장의 길이나 쉼표 유무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①의 '빨간'처럼 짧은 관형절에도 생략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숨어 있으며, ④의 여러 수식어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추가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를 찾고, 각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복원하여 주어·서술어 관계의 수를 센다. 관계가 하나이면 홑문장이고, 둘 이상이면 안은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는 겹문장이다.

**암기 포인트**

홑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하나이고, 겹문장은 둘 이상이다.

NoteBase

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은?
①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②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환담을 나눈 후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왔다.
③ 가벼운 물건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던지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④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어휘가 문맥에 맞는지, 의미가 불필요하게 겹치지 않는지, 관용 표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를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문장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절한 문장은 뜻이 분명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같은 의미를 불필요하게 되풀이한 표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 긍정·부정 표현의 잘못된 호응이 없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인생을 살다'는 '인생'에 이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 들어 있어 의미가 겹친다. '살다 보면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X — '환담'은 정답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이므로 장례식의 조문객을 대하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형은 조문객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왔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분명하며, 어휘 선택과 문장 성분의 호응도 자연스럽다.
④ X — 특별한 우대를 받았다는 문맥에서 '여간한 우대였다'는 부정 표현과 호응하지 않아 뜻이 어색하다. '중인이 보는 앞에서 병기에게 친히 불리어서 가까이 가는 것만 해도 여간한 우대가 아니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상적으로 자주 쓰여 의미 중복을 놓치기 쉽고, ②는 '환담'을 단순히 '대화'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④의 '여간하다'는 특별하거나 대단하다는 뜻을 나타낼 때 보통 '여간한 것이 아니다'처럼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에서 의미 중복, 상황에 맞는 어휘, 문장 성분의 호응, 관용적인 긍정·부정 짝을 차례로 확인한다. 자주 쓰는 표현이라도 뜻을 풀어 보아 불필요한 반복이나 문맥 충돌이 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담은 정답고 즐거운 대화이며, 특별함을 강조하는 '여간하다'는 '여간한 것이 아니다'처럼 부정 표현과 호응한다.

NoteBase

3. 국어 순화가 옳지 않은 것은?
① 핸드레일(handrail) → 안전손잡이
② 스크린 도어(screen door) → 차단문
③ 프로필(profile) → 인물 소개, 약력
④ 팝업창(pop-up 窓) → 알림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와 그에 대응하는 알맞은 순화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잘못 연결된 선지를 찾는다.

**핵심 개념**

국어 순화는 외래어나 어려운 말을 의미와 쓰임에 맞는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다. 순화어를 판단할 때에는 원래 말이 가리키는 대상과 순화어의 뜻이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핸드레일(handrail)'은 사람이 안전을 위해 손으로 잡는 시설이므로 '안전손잡이'로 순화한 연결이 알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차단문'이다. '스크린 도어(screen door)'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문이므로 올바르게는 '안전문'으로 순화한다.
③ O — '프로필(profile)'은 어떤 인물의 경력이나 신상 정보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인물 소개' 또는 '약력'으로 순화할 수 있다.
④ O — '팝업창(pop-up 창)'은 화면에 갑자기 나타나 정보를 알리는 창이므로 '알림창'으로 순화한 연결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차단문'은 스크린 도어가 선로 접근을 막는 기능만 떠올리면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순화어는 기능을 임의로 풀어 쓴 말이 아니라 정해진 대응어인 '안전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래어의 대략적인 기능만 보고 비슷한 말을 고르지 않고, 원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제시된 순화어가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한다. 부정형 발문에서는 맞는 연결을 지운 뒤 잘못된 대응 하나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핸드레일은 안전손잡이, 스크린 도어는 안전문, 프로필은 인물 소개·약력, 팝업창은 알림창이다.

NoteBase

4. 밑줄 친 부분의 비유 방식이 다른 것은?

> 비유(比喩/譬喩): 「명사」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① 요즘은 회사의 경영진에 합류하는 블루칼라가 많아지고 있다.
②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③ 내부의 유리 천장은 없으며 여성들의 상위적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④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유 표현 가운데 대유법과 은유법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대유법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징이나 일부를 들어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은유법은 '같이', '처럼'과 같은 연결어 없이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련된 특징으로 대상을 대신했는지,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직접 겹쳐 표현했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블루칼라'는 푸른 작업복의 옷깃이라는 특징으로 육체노동자 계층을 대신 나타낸 대유적 표현이다. 다른 선지의 은유 방식과 다르다.
② X — '마음'을 깨질 수 있는 물체에 빗대어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한 은유이다. '다른 비유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③·④와 같은 은유 방식이다.
③ X —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 천장'에 직접 빗댄 은유이다. '다른 비유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②·④와 같은 은유 방식이다.
④ X — 사회적 지위가 극도로 낮아진 상태를 공간의 '가장 밑바닥'에 직접 빗댄 은유이다. '다른 비유 방식'이라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②·③과 같은 은유 방식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의 '블루칼라'를 단순히 다른 대상에 빗댄 은유로 보기 쉽다. 그러나 푸른 작업복의 특징으로 그 옷을 입는 노동자 계층 전체를 대신 가리킨다는 점에서 ②~④와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이 대상과 관련된 일부·특징으로 그 대상 전체를 대신하면 대유법으로 판단한다. 연결어 없이 한 대상을 전혀 다른 대상과 직접 겹쳐 나타내면 은유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련 특징으로 대신하면 대유,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면 은유이다.

NoteBase

5. 다음 글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요즘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에 느끼는 개운함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부담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생활양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하여 운동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①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②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③ 신체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를 결정한다.
④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통해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인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빠짐없이 요약한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요약은 글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묶되, 일부 내용만 제시하거나 글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다. 이 글은 운동의 강도와 실천 방식이라는 두 축을 강조한다. 운동 강도는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하면서도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실천 방식은 짧게 하더라도 빈도를 높여 규칙적으로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급적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운동의 빈도를 높이라는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다. 글은 무리한 운동이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강도로, 짧더라도 자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이다.

② O — '무리한 운동보다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은 알맞은 운동 강도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규칙적인 실천을 담고 있다. 글의 두 핵심 내용을 모두 포괄한 가장 적절한 요약이다.

③ X —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여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여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이다.

④ X —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글이 제시한 고려 사항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규칙적인 운동 빈도이다. 올바르게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운동을 매일 일정량 실천하여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문의 문장을 충실하게 옮겨 정답처럼 보이지만 운동 강도만 담은 부분 요약이다. ①은 '빈도를 높인다'를 '쉬지 않고 운동한다'로 과장하고, ④는 지문에 없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추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약 선지는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거나 결론으로 모이는 핵심 내용을 함께 담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일부 내용만 담은 선지, 표현을 과장한 선지, 지문에 없는 조건을 추가한 선지를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좋은 요약은 '핵심은 모두, 세부와 덧붙임은 제외'이다. 이 글의 핵심은 '적절한 강도 +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다.

NoteBase

6. 국어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어긋난 것은?
① 종로 2가 Jongno 2(i)-ga
② 신라 Silla
③ 속리산 Songnisan
④ 금강 Keumgang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 표준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와 행정 구역명·자연 지물명의 표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음운 변화는 말소리가 이어질 때 주변 소리의 영향으로 실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표준 발음을 반영한다.

**핵심 구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종로[종노]는 Jongno, 신라[실라]는 Silla, 속리산[송니산]은 Songnisan으로 적는다. 또한 행정 구역 단위인 '가'는 ga로 적고 앞에 붙임표를 쓰며,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모음 'ㅡ'는 eu로 적으므로 금강은 Geumgang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종로'는 [종노]로 발음하므로 Jongno로 적는다. 행정 구역 단위 '가'는 ga로 적고 그 앞에 붙임표를 쓰므로 '종로 2가'의 Jongno 2(i)-ga는 규정에 맞는다.
② O — '신라'는 자음 동화로 [실라]라고 발음하므로 그 발음을 반영한 Silla가 맞다.
③ O — '속리산'은 자음 동화로 [송니산]이라고 발음하므로 Songnisan으로 적는 것이 맞다.
④ X — '금강'의 '금'을 Keum으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모음 'ㅡ'는 eu로 적고 자연 지물명은 붙여 쓰므로 올바른 표현은 Geumgang이다.

**오답 포인트**

발음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한글 철자의 자음을 그대로 옮기면 Jongro, Sinra, Sokrisan처럼 잘못 적기 쉽다. '금강'의 Keumgang에서 모음 'ㅡ'를 eu로 적은 부분은 맞지만, 첫소리 'ㄱ'은 K가 아니라 G로 적어 Geumgang으로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표준 발음에서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발음에 맞추어 자음을 옮긴다. 이어서 모음 ‘ㅡ’는 eu로 적는지,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쓰는지, 자연 지물명은 붙여 쓰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종로 Jongno, 신라 Silla,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7.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 다른 것은?

> · 사동사(使動詞) : 『언어』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 · 피동사(被動詞) : 『언어』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① 보다　② 잡다
③ 밀다　④ 안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동사의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같은 파생 접미사로 만들어지는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고, 피동은 주어가 남의 행동을 입는 표현이다. 파생적 사동·피동은 어근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을 붙여 만들며, 통사적 사동은 용언의 어간 뒤에 '-게 하다'를 붙여 만든다. '보다→보이다', '잡다→잡히다', '안다→안기다'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각각 같지만, '밀다'는 피동을 '밀리다'로, 사동을 '밀게 하다'로 만든다.

### 선지별 해설

① X — '보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보이다'이다. 접미사 '-이-'를 붙이는 같은 형태와 방식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와 방식이 같다'이다.
② X — '잡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잡히다'이다. 접미사 '-히-'를 붙이는 같은 형태와 방식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와 방식이 같다'이다.
③ O — '밀다'의 피동 표현은 접미사 '-리-'를 붙인 '밀리다'이고, 사동 표현은 '-게 하다'를 붙인 '밀게 하다'이다. 형태도 다르고, 피동은 파생적 방식이며 사동은 통사적 방식이므로 정답이다.
④ X — '안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안기다'이다. 접미사 '-기-'를 붙이는 같은 형태와 방식이므로 '서로 다르다'는 판단이 틀리며, 올바르게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와 방식이 같다'이다.

### 오답 포인트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사동과 피동에 모두 쓰이므로 형태만 보고 한쪽 기능으로 단정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③의 '밀리다'를 사동사로도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밀리다'는 피동 표현이고, '밀다'의 사동은 '밀게 하다'로 표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기본 동사에 대해 '남에게 그 행동을 하게 함'과 '남의 행동을 입음'을 각각 표현해 본다. 두 표현이 같은 접미사형이면 형태와 방식이 같고, 한쪽은 접미사형인데 다른 쪽은 '-게 하다'형이면 형태와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다-보이다, 잡다-잡히다, 안다-안기다는 사동·피동 동형이고, 밀다는 피동 '밀리다'와 사동 '밀게 하다'로 갈린다.

NoteBase

8. ㉠의 처지와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쥔 어른 계서유?"

몸을 돌리어 바느질거리를 다시 들려 할 제 이번에는 짜장 인끼가 난다. 황급하게 "누구유?" 하고 일어서며 문을 열어보았다.

"왜 그리유?"

"저어, 하룻밤만 드새고 가게 해주세유."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짚신 짝으로. 그야 아무렇든,

"어서 들어와 불 쬐게유."

㉠나그네는 주춤주춤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화로 곁에 도사려 앉는다. 낡은 치맛자락 위로 비어지려는 속살을 아무리자 허리를 지그시 튼다. 그리고는 묵묵하다. 주인은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밥을 좀 주려느냐고 물어보아도 잠자코 있다.

그러나 먹던 대궁을 주워모아 짠지쪽하고 갖다주니 감지덕지 받는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심 없이 잠깐 동안에 밥그릇의 밑바닥을 긁는다.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미주알고주알 물어보니 이야기는 지수가 없다. 자기로도 너무 지쳐 물은 듯싶은 만치 대구 추근거렸다. 나그네는 싫단 기색도 좋단 기색도 별로 없이 시나브로 대꾸하였다. 남편 없고 몸 붙일 곳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고 난 뒤,

"이리저리 얻어먹고 단게유" 하고 턱을 가슴에 묻는다.

①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②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
③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였다.
④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문에 드러난 인물의 처지를 파악하고 그 처지와 속담의 뜻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나그네는 맨발에 짚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으며, 남편도 몸 붙일 곳도 없이 이리저리 얻어먹고 다닌다. 따라서 핵심 처지는 '몹시 가난하여 떠돌며 얻어먹고 사는 형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는 몹시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로 산다는 뜻이다. 남편과 거처가 없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나그네의 처지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② X —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떠돌며 얻어먹고 사는 처지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이 속담을 나그네의 가난한 처지에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야단스러운 소문이나 떠들썩한 시작에 비해 실제 결과가 매우 보잘것없는 경우를 이른다.

③ X —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 하였다'는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처지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이 속담을 나그네의 궁핍과 유랑에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버리자니 아깝고 파내자니 품이 들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경우나 성가신 방해물이 끼어든 경우를 이른다.

④ X — '보리누름까지 세배한다'는 가난하여 얻어먹고 사는 형편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이 속담을 나그네의 걸식 생활에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정초의 세배를 보리가 누렇게 익을 때까지 한다는 말로, 형식적인 인사 차림이 지나치게 과한 경우를 이른다.

**오답 포인트**

나그네가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장면만 보고 ④의 '세배'를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행동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속담은 낱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용적으로 굳어진 전체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문에서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는 직접 단서들을 묶는다. 이 문항에서는 '맨발과 낡은 옷', '남편과 거처가 없음', '이리저리 얻어먹고 다님'이 핵심이다. 그다음 각 속담의 관용적 의미를 이 단서들과 대조하면 ①만 일치한다.

**암기 포인트**

패랭이에 숟가락을 꽂는다 → 집과 살림이 변변치 않아 떠돌며 얻어먹는 극심한 가난이다.

NoteBase

9.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집에 들어가 보니 동생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② 정녕 가시겠다면 고이 보내 드리리다.
③ 나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④ 둘째 며느리 삼아 보아야 맏며느리 착한 줄 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장 속 쓰임을 바탕으로 부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말이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미는 말이다. 이 문장들에서 '혼자', '정녕', '제일'은 부사이고, '둘째'는 명사 '며느리'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혼자'는 '밥을 먹고 있었다'의 동작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다른 품사의 예가 아니라 ②, ③과 같은 부사의 예이다.
② X — '정녕'은 '가시겠다면'의 내용을 '정말로, 틀림없이'라는 뜻으로 꾸미는 부사이다. 다른 품사의 예가 아니라 ①, ③과 같은 부사의 예이다.
③ X — '제일'은 '좋아한다'의 정도가 가장 높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다른 품사의 예가 아니라 ①, ②와 같은 부사의 예이다.
④ O — '둘째'는 뒤의 명사 '며느리'를 꾸며 순서가 두 번째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부사인 ①~③과 품사가 다르다.

**오답 포인트**

'둘째'가 수나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만 보고 수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며느리' 바로 앞에서 명사를 꾸미므로 관형사이다. 또한 품사는 단어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문장 속 실제 쓰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무엇을 꾸미는지 확인한다. 용언이나 문장 내용을 꾸미면 부사이고, 조사 없이 체언 바로 앞에서 그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용언을 꾸미면 부사,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NoteBase

10. 밑줄 친 부분의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코로나가 갖고 온 변화는 ㉠<u>침체</u>된 것처럼 보이는 삶 - ㉡<u>위축</u>된 경제와 단절된 관계와 불투명한 미래까지-에서부터 일상의 작은 규칙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등 삶의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 이후의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이지만 반대급부도 분명 존재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가운 현실의 이면에는 분명 또 다른 내용의 속지가 숨겨져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의 감염병 예방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고 ㉢<u>방역</u> 의료 체계가 발전하고 환경오염이 줄고'와 같은 거창한 것은 ㉣<u>차치</u>하고라도 당장, 홀로 있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 들여다보기가 가능해졌다.

① ㉠ 沈滯　② ㉡ 萎縮
③ ㉢ 紡疫　④ ㉣ 且置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한자어의 뜻과 한자 표기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잘못 표기된 한자어를 찾는다.

### 핵심 개념

침체(沈滯)는 기운이나 상태가 가라앉아 활발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위축(萎縮)은 줄어들거나 움츠러드는 것을 뜻한다. 방역(防疫)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일을 뜻하며 '막을 방(防)'을 쓴다.
차치(且置)는 우선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 선지별 해설

① O — ㉠ '침체된'은 활기를 잃고 가라앉은 상태이므로 沈滯가 알맞다.
② O — ㉡ '위축된'은 규모나 활동이 줄어들고 움츠러든 상태이므로 萎縮이 알맞다.
③ X — ㉢ '방역'은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므로 防疫으로 써야 한다. 紡은 '실을 뽑다'라는 뜻의 '길쌈 방'이므로 紡疫은 잘못된 표기이다. 틀린 표현 '紡疫'은 '防疫'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 '차치하고라도'는 어떤 일을 우선 문제 삼지 않고 제쳐 둔다는 뜻이므로 且置가 알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紡과 올바른 防은 모두 음이 '방'이어서 소리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문맥이 감염병을 '막는' 일이므로 '막을 방(防)'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앞뒤 문맥에 맞는 쉬운 말로 바꾼 뒤 각 한자의 뜻을 대조한다. 같은 음의 한자가 제시되면 발음이 아니라 문맥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방역은 전염병을 막는 일이므로 防疫이고, 紡은 실을 뽑는다는 뜻이다.

NoteBase

11.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녀는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
②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담아라.
③ 그는 세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④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미사·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쓰며, 목적의 뜻을 더하는 '-차'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하나의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며, '있을 만큼', '세 번 만에', '쌀, 보리 등'의 '만큼', '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사업차'의 '-차'는 '목적'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사업차'와 같이 붙여 쓴다.
② O — '만큼'은 관형어 '있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보조사 '만'은 '만큼'에 붙여 '있을 만큼만'으로 쓴다.
③ X — '세 번만에'에서 틀린 부분은 '번만에'이다. 경과한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은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 '에'는 '만'에 붙이므로, '그는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열거한 대상 뒤의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 '기장'과 띄어 '기장 등'으로 쓴다. 조사 '을'은 '등'에 붙여 '등을'로 쓴다.

### 오답 포인트

③의 '만'을 보조사로 생각해 '번만에'로 붙이기 쉽다. 그러나 '세 번 만에'의 '만'은 '횟수가 지난 뒤'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에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와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는 붙여 쓰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명사 기능을 하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특히 '시간·횟수+만에' 구조에서는 '만'을 의존 명사로 판단하여 '사흘 만에', '세 번 만에'처럼 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목적의 '-차'는 붙이고, '할 만큼'·'세 번 만에'·'기장 등'의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NoteBase

12. 언어 예절에 가장 알맞게 발화한 것은?
① (아침에 출근해서 직급이 같은 동료에게) 좋은 아침!
②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손위 사람에게) 살펴 가십시오.
③ (윗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며) 건강하십시오.
④ (관공서에서 손님이 들어올 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대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말의 관용적 인사 표현을 알맞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어 예절은 상대의 나이와 지위뿐 아니라 만남·배웅·축하·안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직역한 어색한 인사나 윗사람에게 명령처럼 들리는 표현은 피하고,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좋은 아침!'은 영어식 인사를 직역한 듯한 표현으로, 직장 동료와 아침에 만났을 때의 일반적인 우리말 인사로는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로 말하는 것이 알맞다.
② O — '살펴 가십시오.'는 집을 나서는 손님이 조심히 가기를 바라는 뜻의 관용적인 배웅 인사이다. 손아랫사람이라도 손님으로서 존중하여 예의를 갖춘 표현을 쓸 수 있으므로 상황에 알맞다.
③ X — 윗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면 건강하라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어 생일 축하 인사로 적절하지 않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처럼 축하와 바람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 알맞다.
④ X —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는 도움의 내용인 '무엇'을 직접 돕는다는 뜻처럼 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손님에게 도움의 방법을 묻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로 말하는 것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어 자연스럽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각각 외국어를 직역한 듯한 표현과 부적절한 의문사 사용이 문제이다. ③도 높임말의 겉모양만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윗사람에게는 명령형보다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알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만남·배웅·축하·안내 중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고, 상대에게 맞는 높임과 그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우리말인지를 함께 판단한다. 명령처럼 들리거나 외국어 직역투인 표현은 자연스러운 인사말로 고쳐 본다.

**암기 포인트**

배웅은 '살펴 가십시오.', 윗사람의 건강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가 알맞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4)

>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 ① )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의 이기(二氣)의 정묘함을 포괄(包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써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簡要)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 ㉠ )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 ② ) 이 글자로써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③ )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기는 율려에 잘 맞는다.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 ④ )
>
> -<훈민정음 해례(解例)>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중에서-

13. 다음 (가)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상형을 기본으로 하고 글자는 고전(古篆)을 본떴고 사성을 기초로 하고 음(音)이 칠조(七調)를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중심 내용과 앞뒤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글의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삽입은 삽입 문장의 화제와 앞 문장의 지시 대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삽입 뒤에 그 내용의 구체적 설명이 나오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가)는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과 소리 체계를 만든 기본 원리를 개괄하는 문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앞 문장에서 새 문자의 이름이 '훈민정음'이라고 밝혔으므로, 이어서 그 문자의 제자 원리와 음운 체계를 개괄하는 (가)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뒤의 '천지인 삼극', '음양의 이기'도 (가)의 원리를 구체화한다.

② X: ② 앞에서는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말하고 뒤에서는 그 글자로 글과 송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효용을 이어 간다. 이 사이에 제자 원리를 넣으면 장점과 효용의 연결이 끊긴다. 올바르게는 (가)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제시한 문장 뒤인 ①에 넣어야 한다.

③ X: ③ 앞까지는 글을 풀고 송사를 심리할 수 있다는 실용적 효용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한자음과 악기 소리의 조화를 설명한다. 이곳에 기본 제작 원리를 넣으면 이미 진행된 효용 설명 뒤로 개괄이 늦게 나온다. 올바르게는 제작 원리의 개괄을 상세 설명보다 앞선 ①에 둔다.

④ X: ④는 훈민정음이 여러 자연의 소리까지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 모두 끝난 자리이다. 여기에 (가)를 넣으면 글자 제작 원리를 글의 결말 뒤에서 뒤늦게 소개하게 된다. 올바르게는 이름 소개 뒤이자 원리의 구체적 설명 앞인 ①에 넣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에 '음'과 '칠조'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소리의 조화를 설명하는 ③이나 ④ 근처에 넣기 쉽다. 그러나 (가)는 특정 소리의 예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 전체를 개괄하므로 이름을 소개한 직후가 알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삽입 문장이 대상을 처음 개괄하면 그 대상이 소개된 직후이면서 세부 설명이 시작되기 전의 위치를 찾는다. 또한 각 후보 위치에서 앞뒤 문장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상 소개 → 원리 개괄 → 세부 설명의 순서이면, 개괄 문장은 소개와 세부 설명 사이에 놓인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4)

> 계해년(癸亥年)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 ① )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의 이기(二氣)의 정묘함을 포괄(包括)하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써 전환이 무궁하고 간요(簡要)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 ( ㉠ )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 ② ) 이 글자로써 글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③ )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기는 율려에 잘 맞는다.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가서 통달되지 않는 바가 없다.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 ④ )
>
> -<훈민정음 해례(解例)>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중에서-

14. ( ㉠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리고
② 그런데
③ 그러므로
④ 왜냐하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ㄱ)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원인과 결과를 잇는 접속부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속부사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고'는 첨가·병렬, '그런데'는 대조·전환, '그러므로'는 원인에 따른 결과, '왜냐하면'은 앞 내용에 대한 이유 제시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정음이 간단하고 모든 음에 통한다는 앞 내용이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뒤 내용의 근거가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그리고'는 내용을 나란히 덧붙일 때 쓰므로 앞 문장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그리고'이며, 올바르게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이다.
② X — '그런데'는 앞뒤 내용이 대조되거나 화제가 전환될 때 쓰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대립이 없다. 틀린 표현은 '그런데'이며, 올바르게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이다.
③ O — 정음은 간단하고 모든 음에 통한다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도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그 결과가 되므로 '그러므로'가 적절하다.
④ X —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시한 판단이나 결과의 이유를 뒤에서 설명할 때 쓰지만, 이 문맥은 이유가 먼저 나오고 결과가 뒤따른다. 틀린 표현은 '왜냐하면'이며, 올바르게는 '그러므로'이다.

### 오답 포인트

앞뒤 문장이 모두 훈민정음의 장점을 말한다는 점만 보고 첨가의 '그리고'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앞 문장의 '간요하며 모든 음에 정통하였다'가 뒤 문장의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인과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를 '앞 내용 때문에 뒤 내용이 성립한다'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결과 접속부사인 '그러므로'를 선택한다.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일 때에는 '왜냐하면'을 판단 후보로 삼는다.

### 암기 포인트

원인 뒤 결과는 '그러므로', 결과 뒤 이유는 '왜냐하면'이다.

NoteBase

15. 우리말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② 저녁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③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
④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는지, 접속 표현이 앞뒤 내용의 논리 관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스러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가 문법적으로 호응하고 앞뒤 절의 의미 관계도 논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하물며'는 앞의 경우도 그러한데 뒤의 더 심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므로, 뒤에는 그 방향에 맞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그의 하루 일과를'은 목적어인데 서술어 '시작한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할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문장 구조가 어색하다. '그의 하루 일과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로 고치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한다.

② O
주어 '저녁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농부 내외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와 서술어 '멀리 보였다'가 자연스럽게 호응하며, 관형절과 부사어의 연결도 적절하다.

③ X
형도 풀지 못하는 문제라면 '하물며' 뒤에는 네가 풀기 더 어렵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는데, '네가 풀겠다고 덤볐다'는 단순한 행동을 서술하여 논리적 호응이 어색하다.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인데, 하물며 네가 풀 수 있겠느냐.'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X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뒤에는 그 당부의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형 서술어가 와야 하는데, '마시기 바랍니다'가 이어져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뜻이 통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쉽지만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긋난다. ③은 '하물며'라는 접속 표현 뒤에 앞 문장보다 더 강한 부정적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가 앞뒤 내용의 논리 관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뜻이 대략 통하더라도 문장 성분이나 논리 방향이 어긋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다.

### 암기 포인트

자연스러운 문장 판단의 핵심은 '성분 호응'과 '논리 호응'이다.

NoteBase

16. 밑줄 친 '성김'과 '빽빽함'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 조정, 허와 실의 보완, 성김과 빽빽함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① 곱다 : 거칠다
② 무르다 : 야무지다
③ 넉넉하다 : 푼푼하다
④ 느슨하다 : 팽팽하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성김'과 '빽빽함'의 반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단어 쌍의 의미 관계와 비교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성기다'는 물건 사이의 간격이 뜨다는 뜻이고, '빽빽하다'는 사이가 촘촘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김'과 '빽빽함'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 관계이다. 제시문에서는 시조의 자수와 행·연 구성 등이 촘촘하거나 성긴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곱다'는 살결이나 물체의 표면 등이 매끄럽다는 뜻이고, '거칠다'는 매끄럽지 않다는 뜻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② O — '무르다'는 단단하지 않거나 성질이 여리다는 뜻이고, '야무지다'는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는 뜻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③ X — '넉넉하다'와 '푼푼하다'는 모두 모자람이 없이 여유가 있다는 뜻이므로 유의 관계이다. '성김 : 빽빽함'과 같은 반의 관계가 되도록 고치면 '넉넉하다 : 빠듯하다'가 적절하다.
④ O — '느슨하다'는 잡아맨 상태가 헐겁다는 뜻이고, '팽팽하다'는 느슨함이 없이 힘 있게 당겨져 있다는 뜻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 오답 포인트

③의 '푼푼하다'를 '부족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넉넉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문제의 부정 표현인 '같지 않은'을 놓치지 않고 유의 관계인 ③을 골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된 두 단어가 유의 관계인지 반의 관계인지 정한 뒤, 각 선지의 두 단어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기준쌍이 서로 반대말인데 한 선지만 비슷한말이라면 그 선지가 정답이다.

**암기 포인트**

성기다↔빽빽하다, 곱다↔거칠다, 무르다↔야무지다, 느슨하다↔팽팽하다는 반의 관계이고,
넉넉하다≒푼푼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17. 한글 맞춤법에 옳게 쓰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나는 먼저 미역을 물에 ㉠담궈 두고 밥을 ㉡안쳤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불을 ㉢붙였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생선도 ㉣졸였다. 마지막으로 두부에 달걀옷을 입혀 ㉤부쳤다. 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다. ㉥하느라고 했는데 생일상치고 영 볼품이 없는 것 같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용언의 활용형과 소리가 비슷한 단어의 뜻을 구별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 '담그다'는 어간의 '一'가 탈락하여 '담가'로 활용한다. ㉡ 밥을 솥에 넣어 익히는 것은 '안치다'이므로 '안쳤다'가 맞다. ㉢ 불이 붙게 하는 것은 '붙이다'이므로 '붙였다'가 맞다. ㉣ 생선 등을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끓이는 것은 '조리다'이므로 '조렸다'가 맞다. ㉤ 달걀옷을 입힌 음식을 익히는 것은 '부치다'이므로 '부쳤다'가 맞다. ㉥ 자기 딴에는 노력하여 한다는 뜻에는 '-노라고'를 써서 '하노라고 했는데'라고 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 '담궈'와 ㉣ '졸였다'가 틀렸다. 각각 '담가', '조렸다'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묶음은 ㉡·㉢·㉤이다.
② X — ㉥ '하느라고'가 틀렸다. 이 문맥에서는 자기 딴에는 노력했다는 뜻의 '하노라고'로 고쳐야 하며, ㉥을 빼고 ㉡을 넣은 ㉡·㉢·㉤이 올바른 묶음이다.
③ X — ㉣ '졸였다'가 틀렸다. 생선을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끓였다는 뜻이므로 '조렸다'로 고쳐야 하며, ㉣을 빼고 ㉢을 넣은 ㉡·㉢·㉤이 올바른 묶음이다.
④ O — ㉡ '안쳤다', ㉢ '붙였다', ㉤ '부쳤다'는 모두 문맥과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포인트

'담그다'의 실제 발음을 따라 '담궈'로 적기 쉽고, '조리다'와 '졸이다', '부치다'와 '붙이다'를 소리만으로 판단하기 쉽다. 또한 '하노라고'는 노력이나 의도를, '-느라고'는 앞 행동이 뒤 상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는 차이를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표현을 기본형과 뜻으로 되돌려 확인한다. ‘담그다→담가’, ‘밥을 안치다’, ‘불을 붙이다’, ‘생선을 조리다’, ‘전을 부치다’, ‘자기 딴에는 하노라고’의 짝을 문맥에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미역은 담가 두고, 밥은 안치고, 불은 붙이고, 생선은 조리고, 전은 부치며, 애쓴 뜻은 ‘하노라고’이다.

NoteBase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선비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간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선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많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삶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① 見利思義
② 勞謙君子
③ 修己安人
④ 梁上君子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선비의 덕목과 각 한자성어의 뜻을 연결하고,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제시문의 핵심은 이익보다 의를 중시하고, 자신을 낮추며, 인격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까지 편안하게 하는 선비의 삶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노겸군자(勞謙君子)는 부지런히 힘쓰면서도 겸손한 군자를 뜻한다.
수기안인(修己安人)은 자신을 닦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양상군자(梁上君子)는 들보 위의 군자라는 말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見利思義는 이익을 보더라도 의로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중시한다는 제시문과 관련된다.
② O — 勞謙君子는 부지런히 힘쓰면서도 겸손한 군자를 뜻하므로, 자신을 낮추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자세와 관련된다.
③ O — 修己安人은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인격을 완성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제시문의 궁극적 목적과 직접 연결된다.
④ X — 제시문과 연결된다고 본 부분이 잘못이다. 梁上君子는 선비의 바람직한 덕목이 아니라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의 선비상과 거리가 먼 한자성어이다.

### 오답 포인트

④에 君子가 들어 있어 선비의 덕목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그러나 梁上君子는 글자에 포함된 '군자'가 아니라 성어 전체의 관용적 의미인 '도둑'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성어를 글자별 표면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어 전체의 관용적 의미를 먼저 확인한 뒤, 제시문의 핵심 덕목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견리사의는 의로움, 노겸군자는 겸손, 수기안인은 수양과 평안, 양상군자는 도둑이다.

NoteBase

19. 다음 밑줄 친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와 쓰임이 같은 것은?
① 조선의 독립국임
② 천(天)의 명명(明命)
③ 인도(人道)의 간과(干戈)
④ 대의(大義)의 극명(克明)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관형격 조사 '의'가 앞말과 뒷말 사이에 나타내는 의미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기쁨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열매'로 풀 수 있는 비유적 동격 관계이다.

**핵심 개념**

'의'는 앞 체언이 뒤 체언을 꾸미게 하며, 문맥에 따라 주체·대상·소유나 소속·출처·동격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서는 'A의 B'를 'A이라는 B'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가 비유적 동격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조선의 독립국임'은 '조선이 독립국임'으로 풀린다. '의'가 붙은 '조선'은 '독립국임'의 주체이므로, 비유적 동격이 아니라 주체 관계이다. 올바른 풀이: 조선이 독립국임.
② X — '천(天)의 명명(明命)'은 '하늘의 밝은 명령', 곧 '하늘이 내린 명령'이라는 뜻이다. '천(天)'은 명령을 내리는 주체·출처이므로 '하늘이라는 명령'이라는 동격 관계가 아니다. 올바른 풀이: 하늘이 내린 밝은 명령.
③ O — '인도(人道)의 간과(干戈)'는 '인도라는 방패와 창'으로 풀 수 있다. 추상적인 '인도'를 구체적인 무기인 '간과'에 빗댄 비유적 동격 관계이므로 '기쁨이라는 열매'와 쓰임이 같다.
④ X — '대의(大義)의 구명(克明)'은 '대의를 분명히 밝힘'으로 풀린다. '대의'는 밝히는 행위의 대상이므로 비유적 동격이 아니라 대상 관계이다. 올바른 풀이: 대의를 분명히 밝힘.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가 겉으로는 '명사+의+명사'의 형태이지만, '의'의 의미 관계는 같지 않다. 특히 ①의 주체 관계와 ④의 대상 관계를 단순한 소유 관계로 처리하거나, ③의 '간과'를 실제 무기로만 이해하면 정답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의 B'를 서술형으로 풀어 본다. 'A가 B하다'이면 주체 관계, 'A를 B하다'이면 대상 관계, 'A이라는 B'이면 동격 관계이다. 기준 표현과 같은 풀이가 되는 선지를 고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쁨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열매’, ‘인도의 간과’는 ‘인도라는 방패와 창’이다. 둘 다 비유적 동격의 ‘의’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킬트의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22년에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하면서 각 씨족장들에게 다른 무늬의 킬트를 입도록 종용하면서부터이다.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① 정돈(整頓)되었다.
② 정제(精製)되었다.
③ 정리(整理)되었다.
④ 정착(定着)되었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문맥 속 '자리 잡게 되었다'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한자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정돈(整頓)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가지런히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정제(精製)는 물질에 섞인 불순물을 없애 순수하게 만들거나, 표현 등을 세련되게 다듬는다는 뜻이다.
정리(整理)는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거나 내용을 체계적으로 묶는다는 뜻이다.
정착(定着)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거나 제도·풍습·현상 등이 굳어져 자리 잡는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굳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정착되었다'가 알맞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정돈(整頓)되었다'는 어지러운 것이 가지런히 바로잡혔다는 뜻이므로, 체크무늬가 씨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정돈되었다'는 '정착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정제(精製)되었다'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해졌거나 표현 등이 세련되게 다듬어졌다는 뜻이므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정제되었다'는 '정착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정리(整理)되었다'는 흐트러진 것이 가지런해졌거나 내용이 체계적으로 묶였다는 뜻이므로, 어떤 무늬가 씨족의 대표 의상으로 굳어졌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정리되었다'는 '정착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정착(定着)되었다'는 제도·풍습·현상 등이 굳어져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체크무늬가 각 씨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문맥을 정확히 나타낸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네 단어가 모두 '정-'으로 시작하고 무언가를 바로잡거나 굳히는 느낌을 주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의 핵심은 무늬를 가지런히 하거나 다듬었다는 것이 아니라, 체크무늬가 씨족의 상징으로 굳어졌다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꾼 뒤 한자어의 중심 의미와 대조한다. '관습·제도·현상이 굳어져 자리를 잡다'이면 '정착하다',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하다'이면 '정돈하다' 또는 '정리하다', '불순물을 없애 순수하게 하다'이면 '정제하다'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상징·관습으로 자리 잡음은 '정착', 어지러운 것을 가지런히 함은 '정돈·정리', 불순물을 없앰은 '정제'이다.

NoteBase

2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①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그림자는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② 페르소나를 멀리 하게 되면,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
③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커진다.
④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둘의 관계에 관한 제시문의 인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페르소나: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형성한 자아의 사회적·현실적 측면이다.
그림자: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겨 억압하기 쉬운 원시적 본능과 충동적 측면이며,
자발성·창의성·통찰력·깊은 정서 같은 긍정적 면도 지닌다.
페르소나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림자가 위축되고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자아의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페르소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며 얻은 현실적 속성이고,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 본능 성향이라는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페르소나를 멀리 하게 되면'이다. 제시문은 페르소나만 추구할 때 그림자가 위축되고 자아가 무기력해진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페르소나만 추구하게 되면 자아는 무기력하게 된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이다. 그림자는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충동적 측면이지만 자발성과 창의성 같은 긍정적 면도 지닌다. 올바르게는 '그림자의 긍정적 면을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을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그림자를 억압하게 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하게 된다'라는 인과 관계이다. 제시문이 밝힌 방향은 그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페르소나만 추구하면 그림자가 위축된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인과 관계를 뒤집어 놓았다. ③은 그림자에 자발성과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지만, 그것이 '도덕성을 추구할 때' 커진다고 바꾸어 놓았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에 적응한 현실적 측면, 그림자는 원시적 본능과 억압된 측면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페르소나만 추구함 → 그림자 위축 → 자기 소외와 자아의 무기력'이라는 제시문의 인과 방향을 그대로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 그림자는 원시적 본능과 숨은 긍정성이다. 페르소나의 과잉은 그림자의 위축과 자아의 무기력을 낳는다.

NoteBase

22. 낱말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맑고 → [말꼬]
② 끊기다 → [끈기다]
③ 맏형 → [마텽]
④ 밟고 → [밥 : 꼬]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겹받침의 발음, 받침 ㅎ과 뒤 자음의 축약, 받침 뒤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여 표준 발음이 옳은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겹받침은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받침의 ㅎ과 뒤의 예사소리가 만나면 두 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발음되며, 일정한 받침 뒤의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 선지별 해설

① O — ‘맑고’는 용언 어간 끝의 겹받침 ㄺ이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말꼬]가 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끈기다]’이다. ‘끊기다’에서는 겹받침 ㄶ의 ㅎ과 뒤의 ㄱ이 합쳐져 거센소리 ㅋ이 되므로, 올바른 발음은 [끈키다]이다.
③ O — ‘맏형’은 받침 ㄷ과 뒤 음절 첫소리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므로 [마텽]이 된다.
④ O — ‘밟고’는 겹받침 ㄼ에서 ㅂ이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로 바뀌므로 [밥꼬]가 된다.

### 오답 포인트

②에서 표기에 드러난 ㄴ과 ㄱ만 보고 [끈기다]로 읽기 쉽다. 그러나 ㄶ의 ㅎ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의 ㄱ과 합쳐져 ㅋ을 만들므로 [끈키다]가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겹받침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자음을 먼저 정한 뒤, ㅎ과 뒤 자음의 거센소리되기 및 받침 뒤 된소리되기를 차례로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끊기다: ㄶ의 ㅎ + ㄱ이 ㅋ으로 축약되어 [끈키다]이다.

NoteBase

23. 단어의 구조가 다른 것은?
① 도시락 ② 선생님
③ 날고기 ④ 밤나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를 구성하는 어근과 접사의 수를 살펴 단일어와 복합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복합어 가운데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은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은 파생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도시락'은 더 작은 어근이나 접사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나머지 세 단어는 모두 복합어이므로 구조가 다른 말로 알맞다.
② X — '선생님'은 어근 '선생'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복합어이다. '도시락'과 같은 단일어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분석되는 복합어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 '날고기'는 접두사 '날-'이 어근 '고기' 앞에 붙은 파생어이므로 복합어이다. '도시락'과 같은 단일어가 아니라 '날-+고기'로 분석되는 복합어라고 고쳐야 한다.
④ X — '밤나무'는 어근 '밤'과 어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복합어이다. '도시락'과 같은 단일어가 아니라 '밤+나무'로 분석되는 복합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모두 복합어이지만 결합 방식은 같지 않다. '선생님'과 '날고기'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밤나무'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에만 집중하면 이들이 모두 복합어라는 공통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어가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하나의 어근이면 단일어이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했거나 어근에 접사가 붙었으면 복합어로 판단한다. 그다음 복합어만 어근+어근의 합성어와 어근+접사의 파생어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도시락은 단일어이고, 선생님·날고기·밤나무는 복합어이다.

NoteBase

24.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프로폴리스'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 요법제라고 하고, '설파제' 같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 요법제라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은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보다 효과가 좋게 합성한 것들이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화학 요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이다. 그 밖의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크린', '클로로마이신' 등과 같이 세균세포의 단백합성에 장애를 만들어 항균 효과를 나타내거나, '퀴노론', '리팜핀' 등과 같이 세균세포의 핵산합성을 저해하거나, '포리믹신' 등과 같이 세균세포막의 투과성에 장애를 일으켜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

① 항생제의 정의
② 항생제의 내성 정도
③ 항균 작용의 기제
④ 항생제의 분류 방법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글에 실제로 제시된 중심 내용과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이 글은 항생제를 자연 요법제와 화학 요법제로 나누고, 세포벽 공격·단백 합성 방해·핵산 합성 저해·세포막 투과성 장애라는 항균 작용 기제를 설명한다. 반면 세균이 항생제에 견디는 성질인 항생제 내성과 그 정도는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는 정의가 첫 문장에 직접 제시되어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지 않다. 틀린 판단인 '거리가 멀다'는 '글에서 직접 다룬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글은 항생제의 정의와 종류, 작용 기제를 설명할 뿐 항생제 내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멀다.

③ X
둘째 문단은 세포벽에 작용하거나 단백 합성·핵산 합성을 방해하고 세포막의 투과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항균 작용의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틀린 판단인 '거리가 멀다'는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첫째 문단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 요법제,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 요법제로 나누므로 항생제의 분류 방법을 다룬다. 틀린 판단인 '거리가 멀다'는 '글에서 직접 다룬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본문에 '항생제'와 관련된 여러 전문 용어가 나오므로 '항생제의 내성 정도'도 다루었을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글에 나온 것은 항생제가 세균에 작용하는 방식이며, 세균이 항생제에 견디는 내성의 강약이나 정도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어를 본문의 문장과 대응시킨다. 정의는 첫 문장, 분류는 첫째 문단, 작용 기제는 둘째 문단에서 확인되고, 대응되는 문장이 전혀 없는 '내성 정도'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의 흐름은 항생제의 정의 → 분류 → 항균 작용 기제이며, 내성의 정도는 다루지 않는다.

NoteBase

25. 주장하는 말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결국 평생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어. 식량 배급은 당장 그만두어야 해.

② 네가 술 한 잔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애초부터 술 마실 생각은 하지마라.

③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그 부모는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④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고,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식이요법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작은 출발점이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 확대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 첫 행동을 허용하면 중간 단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극단적인 결과에 이른다고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하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한 번 시작하면 결국'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부 사례나 제한된 경우의 특징을 충분한 근거 없이 전체에 적용하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일부를 전체로 확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식량을 주는 일에서 옷, 집, 평생직장 요구까지 차례로 번질 것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므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이다. 틀린 부분은 식량 배급이 결국 평생직장 보장 요구로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각 요구가 실제로 이어질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② X
술 한 잔이 반복 음주를 거쳐 알코올 중독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단정하므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이다. 틀린 부분은 한 번의 음주가 곧 중독의 연쇄를 필연적으로 만든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한 잔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반복 음주와 중독을 단정할 수 없다.

③ X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일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고 결국 아이들을 망치게 한다고 연쇄적으로 확대하므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이다. 틀린 부분은 부드러운 말투가 곧 훈육 실패와 아이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부드러운 말투와 일관된 훈육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별도의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④ O
‘어설픈 식이요법’에서 생길 수 있는 영양 부족이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식이요법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모든 식이요법을 막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는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 적용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①~③과 오류 유형이 다르다. 올바르게는 부적절한 식이요법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식이요법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 오답 포인트

④에도 영양 부족과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④의 결정적인 표현은 ‘어설픈 식이요법’의 문제를 근거로 ‘식이요법’ 자체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범위를 넓힌 부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를 허용하면 B, C를 거쳐 결국 Z가 된다’처럼 결과를 단계적으로 키우면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로 판단한다. 반면 ‘일부 A가 문제이므로 모든 A가 문제이다’처럼 적용 범위를 넓히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결과가 연쇄적으로 커지면 미끄러운 경사면, 일부가 전체로 커지면 성급한 일반화이다.

NoteBase